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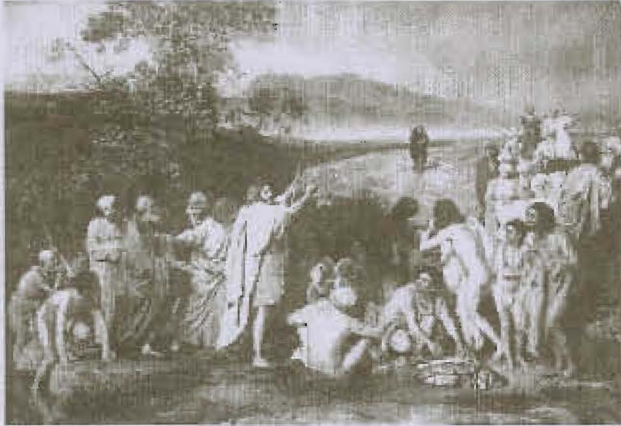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제32권 2호(나해) 2011.12.4

[묵상]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안락한 길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길에서 그분을 맞이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한 준비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오늘날 주님의 길을 위한 저희의 준비는
화려한 성탄장식이나 주고받을 선물들 목록.

주님의 길은 죄의 누우침을 통해
회개한 이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이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용서가 필요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검은 죄의 고백과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란 잘못을 누우치는 것에 더해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께서 주신 저희의 세례를 기억하고
세상 좋은 것들의 손짓에 현혹된 시선을
하느님께로 되돌려놓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에미자 교리반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제주) M.E. Sharing(3제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프레아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밍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김순이 체칠리아, 최광운 베드로,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홍관 요셉
	(생)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연) 유점이 베로니카, 박부원, 오진 베드로, 신태동 요아킴, 고준희 제임스,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이정기 클레멘스 & 이복래 마사 & 김홍배 루카, 이상현 베드로, 이제옥, 김종환 야고보, 엄은섭 도로테오, 유병옥 아브라함 & 유줄리 율리아, 민소에 모니카, 박영춘 안토니오
주 일 낮 미사	(생)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김명숙 루실라 & 김택수 프란치스코 가정, 김순중 엘리사벳 가정, 박주현 마리아, 제대회 회원들, 고규재 체칠리아, 안연숙 루피나, 이영희 카타리나, 박선희 마가렛,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0,1-5.9-11
화답송	◎주님, 저희에게 자애와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저희에 - 게 자애와 구원을 베푸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제 2독서	베드로 2서(2 St. Peter) 3,8-1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흔개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 음	마르코(Mark) 1,1-8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30	133	130
봉헌	269	270	269
성체	301	289	301
파견	123	128	12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그리스도론

영원하신 말씀께서 작아지셨습니다. -구유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지신 것입니다. 아기가 되시어, 우리가 그 말씀을 붙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지니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지니게 되셨고
우리는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나자렛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하느님의 말씀
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독특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사실 그분은 당신의 온전한 인성 안에서 순간마다 아
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요한 8,55 참조).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요한 12,50 참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
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었습니다.”(요한 17,8). 이렇게 예수님
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하느님의 로고
스이심을, 그러나 또한 새로운 아담이시며 참된 인간으로서
순간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심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
의 총애도 더하여 갔습니다.”(루카 2,52). 그분은 완전하게 하
느님의 말씀을 듣고, 구현하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루카
5,1 참조)

예수님의 사명은 마침내 파스카의 신비에서 성취됩니다. 여기
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 (1코린 1,18 참조)을 대면하게 됩
니다. 말씀은 소리가 없어지고, 죽음의 침묵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셔야 할 것에서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시고,
침묵에 이르시기까지 남김없이 “말씀하셨기”때문입니다. 교
부들은 이 신비를 관상하면서, 하느님의 어머니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아버지의 말씀은 말이 없으
십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것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손짓을
향하는 그분의 감긴 눈들은 생명이 없으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사랑”이,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참
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말씀으로 드러나십니다. 하느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는 십자
가에 못박히신 그분의 육 안에서, 영원히 유효하고 풀 수 없는
계약 안에서 결정적으로 서로 만났습니다. <◆계속>

하느님의 소명에 따라 산 사람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던 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서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로서 헌신적으로 일하여 세상에 ‘백의의 천사’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당신의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일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 주신 소명에 따라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과 가죽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벌꿀만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대대적인 세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곧 다가올 하느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세례운동이 군중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추종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메시아이길 바랐고, 또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과 곧 오실 분, 곧 주님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듯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는 생활과 나의 음성만을 듣는 생활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음의 선택에서 한 발자국 전진하여 몸으로 하는 선택, 즉 나의 생활을 방향 짓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나의 이름을 불러 개인적으로 맡겨 주신 하느님의 목적을 자각하는 데서 더욱 구체적이며 가치 있게 발전됩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과 나이팅게일의 삶처럼...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총명한 빛으로 걸어 들어가
“저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간단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 헨리 나웬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지오 글라라	이호미 엘리사벳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아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상철 크리스토퍼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이희경 크리스티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대림 제2주일

오늘 우리는 두번째 대림초를 켜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오실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 ◆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 8일(목) 오후 7시30분
- ◆ 대림 합동 관공성사 : 12월13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관공성사입니다. 어르신들께선 미사전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동보속 : ㉠마르코 복음서 통독 ㉡선행1회 ㉢주모경 기도 중 두가지 선택
- ◆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헌금

오늘 주일 (4일 첫주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교우들께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경통독 '구약 총정리' 특강 ... 전신자들 초대합니다.
 - 일시 : 12월8일(목) 오전 10시, 오후 8시 두차례
 - 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 양业协会 무료 음식봉사
 - 일시 : 오늘 주일(4일) 낮미사 후 친교장
 - 전신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추어탕식 혼합탕) 제공
 - 불우교우돕기 성금모금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양业协会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569-0482

- ◆ 안나회 연총 및 송년모임
 - 일시 : 오늘 주일(4일) 낮미사 후 1층 회의실
 - 문의 : 한루시아 ☎(310)738-4387
- ◆ 예비자 교리반 수요일로 변경
 - 일시 : 12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문의 : 복음화 분과장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 백삼위 골프회 송년 토너먼트
 - 일시 : 12월10일(토) 오전 9시
 - 장소 : 라미라다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장소 : 주일(11일) 오후 3시, 강당
 - 레지오 활동단원, 협조단원과 관심있는 교우들은 모두 참석하시어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기 바랍니다.
-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신청자들께서는 잔금 \$900과 여권 앞면 copy를 오늘 주일(4일)~11일 주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1월16일(월)~19일(목) 3박4일
 - 경비 : \$1,000(1인당 하루팁 \$10 별도)
 - 추가인원 0명 신청 가능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 미시령 특선 황태 판매...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전립기금 모금
 - 일시 : 12월11일(주일) 낮미사 후 친교장
 - 가격 : \$40(700g 10마리)
- ◆ 백삼위 라인댄스 강습
 - 일시 : 12월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성당 강의실(사회복지분과, 성모회 후원)
 - 강사 : 전베로니카(가디나 한국문화회관 라인댄스 강사)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4일(주일) : 양业协会(추어탕식 혼합탕 \$무료제공)
 - 12월11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김성일	김우용	김 욱	김정희	김종문
	김찬구	김학점	박진희	박진수	박홍룡	서성용
	성낙호	소성덕	신경훈	임정자	오세원	윤석구
	윤화경	이정태	이귀분	이병우	이상규	이석진
	이영미	이인석	임 순	장영진	정열모	정혜영
	정훈모	조준제	주대중	최길주	최수현	최원석
	최이원	최재은	최태훈	한길선례	한혁수	
	황인종	김정희(안젤라)				
합계 : \$4,345						
미사헌금 : \$2,481 주보후원금 : \$250						

성전헌금	강인모	김성일	김우용	김 욱	김종문	김찬구
	박선희	서성용	성낙호	소성덕	신경훈	엄정자
	오세원	윤화경	이정태	이귀분	이병우	이상규
	이영미	이인석	임 순	정열모	정혜영	정훈모
	조준제	주대중	최길주	최원석	최이원	최재은
	최태훈	한길선례	한혁수	황인종	김정희(안젤라)	
합계 : \$3,144.70						
감사헌금 : 윤석구 박이레네 리사이클링 : \$119.70						

공지사항

◆ 주일학교 Youth Group '아가페' 기금모금 성물판매

- 일시 : 오늘 주일(4일) 학생미사/낮미사 후
- 목적 : 봉사활동 및 선교
- 품목 : 크리스마스 선물용 팔찌목주, 귀걸이 등등...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백삼위 서예반 '서경희' 회원모집

- 좋은 취미생활로 아름다운 노후에 활력을 주는 서예- 관심 있는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 모집대상 : 한글반, 예서반(한문) 사군자반
 - 지도 : 박태홍(일호 : 한국예총 미주서예가협회 회장)
 - 문의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대림 제1주일부터 영어미사 경본이 바뀝니다.

새 전례력이 시작되는 올해 대림 제1주일부터 북미주 모든 가톨릭교회에서는 개정판 영어미사 경본을 사용합니다. 한영 매일미사 12월호부터 최종 교정을 거쳐 바뀐 영어미사경본(주일미사)으로 출판되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내주세요.

- 넉넉잡은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1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남가주 소식

◆ 영화와 함께 하는 피정(Retreat with Movie)

- '영화와 함께 하는 피정'은 대중영화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체해해 보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 12월10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 상영영화 :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yness)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310)324-8159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피정비 : \$20(간소한 김밥제공)
 - 2012년 일정 : 1~5월 매달 세번째 토요일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7일(토) 오후 6시
- 장소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 내용 : 추억이 있는 분당별 발표 경연대회, 경품 푸짐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마오로 & 정병옥 율리아 ☎(310)780-9055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지경수 마태오 972-8292 12/9(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2/10(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메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16(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근식 미카엘 316-7608 12/10(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12/12(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엄영숙 마리아 373-5662 12/9(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12/8(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12/18(주일) 오후 1시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삼마오로 780-9055 12/18(주일)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서창호 바오로 257-1784 12/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377-2228 12/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2/9(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2/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	--

정의와 사랑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

- 사회교리주간 제정에 즈음하여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신자들이 사회 교리에 관심을 갖도록 올해부터 해마다 인권주일부터 한 주간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지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 교리'는 정치, 경제, 인권, 노동, 평화, 환경, 생명 등의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정리한 교회의 공식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이후 100여년의 사회적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난 2004년에 「간추린 사회교리」를 발간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다루지는 사회 교리를 잘 모르고 용어조차 생소합니다. 사회 교리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 있는 한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도덕적 가치를 일깨우고, 정의와 공동선을 통해 참된 인간 발전과 완성을 지향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인공피임, 낙태, 사형제도, 안락사, 배아연구, 4대강 개발, 핵발전소 정책,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반대해 왔습니다. 교회는 사회 교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지닌 불의하고 비도덕적인 측면들, 특히 생명을 파괴하고, 탐욕을 앞세워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의 가치를 파괴하는 오류들을 지적해 온 것입니다.

한편 교회의 사회적 발언과 참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법(747조)은,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 구원과 관련된 사회 질서에 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현장인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 사회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교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정의와 평화로 참된 인간 발전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의 새계명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사회 교리는 교회가 불의와 폭력을 고발할 의무가 있고, 특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권리를 판별하고 수호하여 사회 정의를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2년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로 정한 “새 복음화”의 방법은 바로 사회 교리의 실천입니다. 각 교구에서는 ‘사회 교리 학교’ 등을 통해서, 각 본당의 사목자들은 강론과 교리 교육을 통해 사회 교리를 적극적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신도들은 현세 질서를 쇄신할 예언적 수행의 사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 교리를 잘 배우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기원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사회 교리 주간 기도문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

는 공동선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사회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파견된 저희가 자신의 소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2011년 사회 교리 주간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준